

“부산 중심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계획 즉각 중단하라”

78개 단체 가입 전남수산인총연합회, 여야 대선 후보에 촉구 ‘제1의 수산기지 전남’ 소외 심각...수산분야 예산내역 공개 요구

전남수산인총연합회는 15일 “부산 중심의 해양 수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정부의 지역별 수산분야 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라”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요구했다.

지역어촌계, 지역단위 수협, 어업인단체 등 전남 78개 수산단체가 가입된 전남수산인총연합회는 제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은 전남의 힘”이라며 여야 후보들에게 13개 수산분야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전남은 전국 최대의 양식 어업 면적 19만 3000ha(전국 66%), 어선 2만 7000척(전국 42%), 수산물 생산량 187만7000t(전국 57%), 어업 인구 3만 6000명(전국 36%)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수산물 생산 기지”라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확대와 적은 예산 배정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어업 인구 감소, 생산 및 가공 시설 노후·미흡, 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수산업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촌

의 정주여건도 매우 열악하다”고 역대 정부의 전남 수산 소외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연합회는 우선 “부산 중심의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서술 소재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 편성 예산을 공개하고 전국 제1의 수산 지자체인 전남의 위상에 걸맞는 수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수산관련 지자체 교부금 중 50%를 전남에 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어업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실현을 위해 수산직불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여야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섬 주민들 교통 편의를 위한 연안 여객선 공영제 실시, 수산 관련 고교, 대학 등 수산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정부가



전남수산인총연합회 노평우(가운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1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수산 분야 1위, 전남을 정부의 수산분야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 소외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여야 후보들에게 13가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수산인총연합회 제공>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 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과 함께 정부 주도의 해양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도 주장했다.

노평우 전남수산인총연합회 회장은 “기후 변화와 연근해 어족 자원의 감소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수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전남은 수산

분야 전국 1위 지역인데도 그에 걸맞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전남 수산인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유지 필요... 조정안 금요일 발표

중증 최소화...비용·효과 고려

정부가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

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집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

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와 성인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 임원추천위, 윤진보 사장 연임 결정

환경공단 이사장 17일 면접...시 산하 공사·공단 수장 선임 곧 마무리

광주시 산하 4대 공사·공단 수장 인선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윤진보 현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이윤섭 광주시장은 적격성을 판단해 1년간 연임 여부를 확정한다. 윤 시장은 지난해 말 광주시 공기업 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아 연임 조건을 충족했다. 임기 중 행정안전부 최고 등급(가)과 광주시 최고 등급(S)을 받으면 연임할

수 있다.

다음 달 20일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환경공단은 후임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2명이 17일 면접을 앞두고 있다.

환경공단 이사장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정민근 도시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데 이어 민선 7기 말 광주시 4대 공사·공단 수장 인선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

오늘부터 재택치료자 처방약, 동네약국서 조제

먹는치료제는 지정약국에서만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해열제 등 처방 의약품도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경우(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사·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재택치료자의 처방 의약품 조제·전달 약국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껏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사·군·구

화·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집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

러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담당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대해 “내일부터 동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약은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처방약과 다른 진료에 대한 약품”이라며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분 부동산
삽니다.
바로처리.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5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전남도, 조선업 현장 맞춤형 인력 확대... 1344명 양성

전남도가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 생산 인력 양성 지원사업 확대해 지난해(1166명)보다 15% 증가한 1344명을 양성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한조선 등 국내 주요 조선사는 2021년 64척을 수주해 2013년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수주잔량도 지난해 109척으로, 2019년 83척, 2020년 82척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부터 인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 것을 대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사 결과, 올해 전남지역 조선인력은 121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도는 조선업 현장인력 확대를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해 1344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현대중공업, 대한조선 등 조선 기

능인력 훈련기관에서 훈련 시 175명에게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3년간 보조한다.

또 도내 조선 분야 퇴직자 및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로 특수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하고, 교육생에게 2달간 월 40만원의 훈련수당과 월 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 조선기업의 용접·도장 등 생산공정의 스마트 자동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이 분야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친환경자동차 생산장비 전문 인력 및 비계 전문기 양성 교육, 친환경 선박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해 인력을 제때 공급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철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초·중·고층용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철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기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사장안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윙클러스길 건너편 동평주빌딩)
대표 임용주 010-3454-2389

사람을 찾습니다

성: 김해 김씨
女, 67세, 원숭이띠
생일: 10월 13일
(시: 오전 11시)
010-5061-2496

자본감소공고
당회사는 2022년 2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700,000,000원 중 금200,000,000원을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70,000주 중 20,000주를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5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 익일부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것을 공고함.

2022년 2월 16일
주식회사 한솔종합건설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압해로 1380, 1층
대표이사 김춘화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정경철(700623-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82번길 23 (풍암동)
피상속인 망 정경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법원 2021년 1392호로 신청하여 2022년 2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판사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재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뒤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2월 16일

• 상속인: 정소정(950720-XXXXXX)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1002호 (동교동, 효성중업인간고퍼스텔)
• 신고기간: 2022. 2. 16 ~ 2022. 4. 2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정소정의 주소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구	• 통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625-3761	• 신 222-8171
	• 양 선 571-7658	• 오 치 266-7001
	• 용 북 433-1503	• 우 선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동 명 603-0311
	• 화 천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